진실의 입 닫고 또 꾸벅꾸벅 졸아…여전히 뻔뻔한 전두환

1년만에 광주법정에선 전두환

청각 보조장치 착용하고 참석
직업 등 묻자 "잘 안들린다"
"헬기 사격 없었다" 끝까지 발뺌
방청객 "살인마" 외치다 퇴정도

전두환(89)씨는 또 헬기 사격이 없었으며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재판 진행중에도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전씨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인정신문은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하는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전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을 때는 잘 안 들린다며 이씨에게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지만 주소를 확인할 때는 맞다고 답변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장 최태영 검사가 법정 화면에 PPT 자료를 띄우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검사는 "다수 진술,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헬기사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다수의 증거를 보면 헬기사격이 있었음이 명백함으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있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회고록 발간 시점까지 발간된 다른 자료들,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다른 수뇌부가 헬기 사격 증언한 등 종합할 때 회고록 출간 당시 적극적,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기대 검사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도 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도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했다. 전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전씨 변호인은 "국방부 특조위가 말한 헬기 사격설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의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전씨 변호인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하늘의 어느 상공에서도 광주시민을 향한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된 것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거친 반발도 터져나왔다.

전씨측 변호인이 "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때는 방청객이 "그럼 광주시민을 누가 죽였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방청객은 "공수부대가 죽였잖아! 저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라고 큰소리로 외치다 퇴정당했다.

재판이 1시간 20분 이상 이어지다가 10분간 휴정한 후 재개될 때에도 방청객 중 한 명이 "무슨 사격을 안 했다고…. 나는 내 자식을 22일 만에야 찾았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1일에는 김희송 전남대 교수와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미국 평화봉사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전씨측은 다음 재판에 불출석 허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 등 3시간 30분 넘도록 앉아서 들을 수 있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영대 신부도 "광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전해준 전씨가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장에 앉아서 본인이 저지른 죄악을 모두 들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재판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한 전두환씨가 법정동으로 들어가자, 5·18 유족회 어머니들이 법정동 입구 앞에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의원이 여성 군의원 마스크로 얼굴 때리고 폭언 '물의'

"느그 애비보다 나이 더 먹었다"
총선 때 막말·폭행…징계 청원

강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이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같은 당 여성 군의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도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동료 여성 의원에게 "여자는 모셔본 적 없다"며 막말하고 명패를 걷어찬 전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청원서가 최근 접수돼 윤리심판원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A 도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께 강진 마량면 장터 인근 민주당 유세장에서 B 군의원을 일회용 마스크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고성과 함께 폭언을 했다. 또 "○○ 같은 짓거리하고 자빠졌다.", "이 ○○아 느그 애비보다 (내가) 나이 더 먹었다"는 막말도 했다고 B군의원은 주장했다.

징계청원서에는 폭언·폭행 과정은 도·군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김승남 승리 유세단 5명이 지켜봤다고 적혀 있다.

A도의원은 김승남 당선인의 권유로 한 차례 공개 사과를 했으나, 이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변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도의원에게) 회의를 통해 유세단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인데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A 도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전두환 조형물 때리기 퍼포먼스에 보수단체-시민들 충돌

"역사적 단죄가 곧 5·18의 시작 " 청춘 서포터즈 열변 토해

전두환 재판 이모저모

○…27일 오후 전두환씨의 재판을 앞두고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와 시민들 간 충돌이 빚어졌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등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5월 3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한 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다중이 모이는 광화문 등에 설치하고 폭행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5월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저지하고 나서자 경찰은 충돌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두환처럼 뻔뻔하기 그지 없다"며 분개했다.

○…5·18 청춘 서포터즈 '오월 잇다'는 '전두환 단죄 동상' 앞에서 전씨에 대한 단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20학번인 박범수(광주대 1년)씨는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곧 5·18민중항쟁의 시작이며,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내란세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지켜낸 모든 영령들과 광주시민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소혁(무진중 3년)군도 전씨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김군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40년 전의 아픔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두환은 하루빨리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직접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5·18의 진상을 알리려다 군에 강제징집돼 고문을 받음과 동시에 밀고지시를 받았던 당시 대학생 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위원회 회원 10여명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및 의문사와 관련 자료 즉각 공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만원 훔친 30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데…4개월 실형 왜?

법원 "누범 기간 범행·야간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

30대 남성이 새벽에 남의 건물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징 때문에 실형이 불가기피했다. 일각에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시 북구 모 치킨집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A씨가 동종 전력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별로 양형 가중·감경 인자들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건과의 형벌 체계상 균형에 문제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15036	1	광산구 송도로212번길31-8, 103동 12층 1202호 [송정동,대화아파트] 59.91㎡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9타경74738[중복]
2019타경 15210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60-15, 1동 4층401호[월계동,베네시티주건축물] 23.8433㎡	아파트	75,000,000 75,000,000	
2019타경 18745	1	남구 원효천1길5, 503동 16층 1602호[송하동,송하동진아리채2단지아파트] 84.9969㎡	아파트	290,000,000 290,000,000	부동산현황조사보고일인2020.1.10.기준관리비544,810원미납된상태
2019타경 72442	1	북구 운암동 110-80 106동 7층 701호 84.975㎡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2019타경 74189	1	서구 풍암동 664-6 동부센트레빌 108동 6층 602호 84.601㎡	아파트	300,000,000 300,000,000	
2019타경 74349	1	서구 풍암순환로10, 203동 17층 1708호 [풍암동,풍암지구호반,중흥아파트] 59.55㎡	아파트	161,000,000 161,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9타경 13108	1	북구 경양로97번길26-6, 2층 203호 49.27㎡	다세대	95,000,000 9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13214	1	담양군 용면 용치리 315-2 90㎡[현황일부도로]	답	1,890,000 1,8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담양군 용면 두장리 1043-8 2502㎡[현황전.지상소재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105,084,000 105,0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13542	1	광산구 남산동 833 1610㎡[공유자이종심지분280분의18전부][압류채권자로부터매수신청이있고보증이있음[매수신청금액금4,847,000원].원상회복명령발령가능성있다는본량동장의사실조회회신있으니매수신고인에게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를행정기관에미리확인할것]	전	3,933,000 3,933,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그횟수를1회로제한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상분묘5기소재
	2	동소 64-14 1372㎡[공유자이종심지분280분의18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압류채권자로부터매수신청이있고보증이있음[매수신청금액금5,653,000원]]	답	4,586,400 4,586,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그횟수를1회로제한함
2019타경 13818	1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56-1 4056㎡[공유자이종순지분27/675,먼뀨이화지분6/675,김희원,김희양,김희옥각지분4/675,김문자지분18/675,최순영지분6/675,김승희,김경희,김	전	6,219,200 6,219,2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
2019타경 13818	1	광호각지분4/675,김인환,김연례,김연환,김민주,김장원,김미화,김진환,김정화각지분18/675]			상의분묘1기소재
2019타경 15821	1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423-2 79㎡	대	8,453,000 8,453,000	매각제외되는창고가소재함
2019타경 16565	1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646-1 2218.7㎡	답	69,667,180 69,667,1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17025	1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산47-5 8397㎡	임야	83,130,300 83,130,300	연고미상의분묘소재함
2019타경 17261	1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39-20 238㎡	답	3,808,000 3,8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72800	1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77-4 991㎡[현황:묘지][공유자윤현덕지분1/4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상분묘8기소재]	전	30,225,500 30,225,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19타경 73414	1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산43-4 32879㎡[현황:일부전및묘지.공유자조민호지분1/4전부],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임야	30,413,070 30,413,070	지분매각,제시외건물및이동가능한비닐하우스각매각제외
2019타경 73704	1	나주시 반남면 석천리 137-1 2479㎡[공유자나봉규지분64분의3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	전	18,592,500 18,592,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19타경 73827	1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638-1 2656㎡[현황일부전,지상소재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169,984,000 169,9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15722	1	북구 문산로81-1, 상가1동 1층 106호 [문흥동,문흥라인동산아파트] 24.57㎡	근린시설	36,000,000 36,000,000	현황지상2층이며집합건축물대장상층수표시도2층임
2019타경 17490	1	나주시 그린로229, 1층 104호 [빛가람동,그린타워] 59.42㎡	근린시설	501,000,000 501,000,000	
2019타경 74660	1	나주시 상야4길22, 4층 419호 [빛가람동,스퀘어가든] 113.40㎡	근린시설	238,000,000 238,000,000	
	2	나주시 상야4길22, 4층 420호 [빛가람동,스퀘어가든] 139.32㎡	근린시설	280,000,000 280,000,000	
[자동차,중기]					
2020타경 61530	1	사용본거지:전남 보성군 율어면 상빙길 46 금천리 [금천리] 등록번호:48저0777 차명:EQ900 연식:2016	자동차	41,000,000 41,000,000	보관장소:남구송암로124-3
[기타]					
2019타경 15821	2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501-9 83㎡	도로	2,490,000 2,490,000	
	3	동소 501-7 304㎡[공유자설연진,설영란,설진환각43/456지분전부.지분매각]	도로	2,580,000 2,580,000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 제한
2019타경 17391	1	광산구 신룡동 263-2 99㎡	도로	4,302,000	일괄매각,정확한
		동소 271-2 140㎡	도로	4,302,000	위치및경계측량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5. 12.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5. 19.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형준